

리디아 고 세계최고 실력 '계속 GO'

블랙스세계여자골프 랭킹 17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지진 약재에도 새해 첫 승을 이뤄낸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9·한국명 고보경)와 부상으로 대회를 쉬고 있는 박인비(27·KB금융그룹)의 희비가 엇갈렸다. LPGA가 16일(한국시간) 발표한 '블랙스 세계여자골프 랭킹'에 따르면 리디아 고는 평균 11.31점으로 17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켜냈다.

리디아 고의 뒤를 이은 박인비는 9.90점을 기록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리디아 고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리디아 고는 지난해 10월 박인비를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새해부터 자신의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지난 7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츠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한 뒤 본격적으로 '골프여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지난 14일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한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 지진 약재에도 첫 승을 이뤄낸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



지난 14일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한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 지진 약재에도 첫 승을 이뤄낸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

박인비(10.92)의 점수차는 0.3점에 불과했지만 한달새 1.41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0년 ISFIS 한다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 처음 출전한 리디아 고는 2013년 아마추어 자격으로 우승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뉴질랜드 골퍼가 나를 후원해줬던 것이 생각나 18번홀을 돈 후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며 우승상금 전액인 3만 유로를 기부하기도 했다.

리디아 고는 오는 18일 열리는 LPGA 투

어 ISFI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 출전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리디아 고는 지난해에도 뉴질랜드오픈과 이 대회 연속 우승을 이룬 바 있다.

올해 LPGA 투어 활동 10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 가입할 수 있는 박인비는 새해부터 부상으로 올 시즌 스타트를 제대로 끊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말 출전한 LPGA 투어 개막전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부상을 당한 뒤 기권했다. 7오버파 8타. 박인비가 남긴 성적 중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스코어다.

박인비는 오는 25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이랜드를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허리 통증에 시달리면서다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4개 메이저대회 석권)을 달성했다. 사상 7번째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큰 무대에서의 굼직한 경험과 우승 전력에서는 박인비가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뒷받침해주는 단편적인 예다.

올 시즌 시작은 박인비가 밀렸지만 두 여제의 정상 다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LPGA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민근기자

완주군-현대자동차-전북현대모터스FC 협약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FC와 16일 전북현대모터스FC 클럽하우스에서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MOU(민간자본 투자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이 유망인구 증가와 연계 업종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메카 조성으로 인한 ▲지역 특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협약은 ▲완주군 사업부지(19필지 28,225㎡) 매입 ▲현대자동차 정규규격 축구장 조성(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1면) ▲전북현대모터스 지역생활스포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체결했다.

이를 위해 군은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완주군 봉동읍 을소리 일원 19필지 28,225㎡규모의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총 47억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정규규격 축구장 2면(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1면)과 부대시설을 오는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승과 함께 관중동원 1위(390,858명)를 달성한 전북현대FC는 '비전2020'을 바탕으로 ▲유소년 클럽하우스 조성 ▲글로벌 축구인재 육성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지역 사회 공헌활동 강화 ▲축구 주변 확대 등 축구메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완주군과 함께 개발·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스포츠 체험전 3주간 진행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다양한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이 3주 동안 진행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조직위와 KT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평창올림픽 볼 조성과 동계스포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체험전 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스노우볼 전시는 물론 아이스하키와 봅슬레이, 컬링 등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KT는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일 세계 최초 5G 기술과 관련한 홍보전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피츠버그 강정호 시즌 5번 타순·3루수 예상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9)가 2016시즌 주전 3루수 겸 5번 타순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 피츠버그 홈페이지는 16일(한국시간) 올 시즌 피츠버그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전망했다.

MLB.com은 1번 그레고리 플라코(우익수), 2번 조쉬 헤리슨(2루수), 3번 앤드류 매커친(중견수), 4번 스티븐 마르테(좌익수), 5번 강정호(3루수), 6번 존 제이스(1루수), 7번 프란시스코 사벨리(포수), 유격수 조디 머서(유격수)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다.

지난 시즌 막판에 무릎 부상으로 수술 후 재활에 매진하고 있는 강정호는 개막전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5번 타자 겸 3루수로 꼽혔다.

강정호의 부상 복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개막전 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예상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루를 책임졌던 닐 워커와 1루수 페드로 알바레스가 팀을 떠나면서 복잡했던 수비 포지션도 정리가 됐다.

워커의 트레이드로 생긴 2루 공백은 지난해 내야와 외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던 헤리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격수 자리는 머서가 책임지고, 3루수는 강정호가 맡게 된다. 1루수는 제이스로 예상된다.

/김민근기자

김효주 세계랭킹 6위 탈환 올림픽 출전 경쟁 치열

지난해 9월 이후 22주만에 ...10위권 내 한국선수 6명 포진

김효주(21·롯데)가 세계랭킹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지난해 9월 이후 다시 찾은 6위 자리다.

LPGA가 16일(한국시간) 발표한 '블랙스 세계여자골프 랭킹'에 따르면 김효주는 평균 5.29점으로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을 0.1점 차이로 제치며 6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퓨어실크 바하마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해 10위에서 7위로 오른 적이 있다.

그의 6위 탈환은 지난해 9월 이후 22주 만이다. 지난해 7월 4위까지 올랐다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현재 김효주는 상급랭킹 2위(21만9294 달러)에도 랭크됐다. 1위에는 지난 7일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장하나(24 비씨카드)가 자리 잡고 있다.

김효주는 오는 25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혼다 LPGA 타이랜드대회에서 시즌 2승을 노린다. 이를 위해 18일 열리는 호주여자

오픈도 건너뛰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둔 시기여서 의미가 크다.

김효주가 새해부터 물오른 플레이를 보이며 치고올라감에 따라 한국여자골프의 올림픽 출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12년 만에 올림픽에서 골퍼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출전 선수는 7월11일 발표되는 최종 올림픽 랭킹에 따라 출전 선수가 가려진다.

올림픽 랭킹은 최근 경기에 비중을 두는 세계 랭킹을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한국가당 남녀별로 각각 2명의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국가가 세계랭킹 15위 안에 4명 이상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여자골프는 4명 참가가 유력하다.

현재 10위권 내에는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비롯



해 한국 선수들이 6명 포진돼 있는 상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와 김세영(23·5위)에 이어 김효주가 세 번째, 유소연은 네 번째(7위)다.

장하나는 9위 자리에서 유소연을 추격하

고 있다. 점수차는 0.19점. 최강으로 꼽히는 한국여자골프의 대표팀 선발은 미국 남자대표팀 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기자

2016 무주군 체육협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2016. 2. 18 ~ 2. 19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